

## 제4차 코리아 평화통일 심포지엄 참여기

박영호 / 민족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나는 지금 이 글을 6박 7일의 짧은 기간 동안 방문한 버클리로부터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쓴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한국학위원회와 대학종교위원회(특히 루터란 교회) 등이 중심이 되어 개최한 제4차 코리아 평화통일 심포지엄(1994. 4. 6~9)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이다. 이번 여행은 짧지만 그 어느 때의 여행보다 보람있는 여행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척 아쉬운 여행이었다. 애초에 이번 심포지엄에 참가하게 된 동기도 나중에 안 일이지만 우여곡절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번 심포지엄에는 북한측 인사들도 참여할 예정이었다.

유감스럽게도 북한측 인사들이 무슨 이유인지 최종 순간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예정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번 심포지엄에 거는 나의 기대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들은 북한의 조국통일연구원 한응식 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최성익 부국장, 김일성종합대학교 최금춘 교수,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교 권호웅 학생대

표였다. 남한측 인사들로는 통일연수원 윤병익 교수,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김윤옥 원장,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김태식 회장, 그리고 나였다. 권호웅 학생 이외의 북한측 참여자들은 그동안의 남북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인사들이라고 들었다.

코리아 평화통일 심포지엄은 버클리대 한인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학위원회, 버클리대학 종교위원회, 버클리대학 아시아 아메리칸학과 등이 주최가 되고, 버클리대학 당국, 버클리시, 한인단체 및 지역유지들이 후원을 하여 3년전부터 연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행사이다. 지난 1993년 제2회 때는 남북한 양측이 모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장이 전개되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작년에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 대표가 불참을 통보해와 취소되었다고 한다. 이번의 경우 북한측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통보해 왔기 때문에 남북한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지한 토론의 장이 다시 한 번 열리기를 주최측은 기대했었다. 이번 심포

지엄의 주제는 “평화통일로 가는 길: 현존하는 장애물을 헤치며”였다.

미국으로 향하기 전 우리 일행은 상견례를 위해 만났었는데 모두들 버클리대학에서 개최되는 평화통일 심포지엄에 북한측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남북관계의 현안을 비롯하여 우리의 통일문제를 북한측과 진솔하게 논의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열의가 충만해 있었다. 이미 언론에는 남북한의 학생대표가 처음으로 상면할 예정이라는 것이 뉴스의 초점이 되어 있었다.

서울의 지독한 교통지옥을 또 한번 경험하며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교통지옥은 북한측 인사를 만난다는 기대로 상쇄할 수 있었다. 공항에서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도 우리 일행의 가방에 대한 검색이 있었는데 핵문제나 북한문제를 다루는 글이 눈에 띄게 되었다. 나는 세관직원에게 우리의 신분과 여행목적을 말해 주었다. 세관직원은 북한관련 물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소한 경험으로부터 나는 우리의 분단의 고통이 끝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는 예정된 시간에 김포를 이륙하였다. 자리를 함께 잡은 김태식군과 나는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북

관계와 통일문제를 보는 시각으로부터 인간의 본질적 가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의 여행이 단순한 휴가여행이 아님을 말해주는 자리였다.

어느새 비행기 창밖으로 나는 금문교를 바라볼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은 매우 화창하였다. 근 10시간에 달하는 비행 끝에 우리 일행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였다. 미국에서 여러해 동안 공부했고 여러차례 미국을 여행했지만, 내가 금문교의 고향이며 세계적인 미항의 하나로 알려진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또한 나의 전공학문인 정치학에서 세계적 수준에 있는 버클리캠퍼스를 방문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공항에 도착해서 나는 다소 당황하였다. 출입구를 나오니 예쁜 여학생이 꽃다발을 들고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여기 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또한 방송카메라도 우리를 찍고 있었으며 기자들이 우리에게 마이크를 갖다대며 이번 심포지엄의 의의, 북한측 인사들이 오지 않고 있는 이유,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의견 등을 물어보았다. 순간적인 혼동을 벗어나 살펴보니 이곳 교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과 방송의 기자들이 나와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에 대한 교포사회의 열기를 짐작케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를 실망케 한 것은 우리 일행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할 예정이었던 북한측이 아직 오지

않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아무런 통보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이곳의 한인교포들이나 언론들은 북한측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 준비위원회 의 공동의장인 루터란교회 구스타프 슐츠 목사와도 인사를 하였다.

꽃다발을 안고 공항을 빠져나온 우리 일행은 한인교포가 운영하는 중국식당으로 안내되었다. 비교적 큰 식당이었다. 안내학생과 심포지엄 관계 인사들은 우리들에게 긴 여행의 피로를 되풀이하여 걱정해 주었다. 식당에도 현지 한인 언론들의 취재가 계속되었다. 특히 김태식군에게 기자들의 취재가 집중되었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회장단과 인사하였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 일행은 두대의 차에 분승하여 버클리로 향했다. 나는 슐츠 목사가 운전하는 차를 탔다. 버클리는 샌프란시스코와 바로 접하고 있으며 오클랜드와도 접하고 있다. 버클리로 가는 도중에 슐츠 목사는 보물섬(Treasure Island)으로 갔다. 잠시 차에서 내린 나는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샌프란시스코만의 넘실거리는 파도와 만 한가운데 떠 있는 알카트라즈(Alcatraz)섬을 보았다. 중범죄인들이 탈출할 수 없도록 사방이 출렁이는 파도로 둘러싸여 있는 그 유명한 알카트라즈 감옥이 바로 그곳이다. 지금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며 관광지라고 슐츠 목사는 말해주었다.

이제 대학도시인 버클리로 들어섰다. 공부를

하면서 늘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뜻깊은 감회를 주는 곳이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창설자인 헨리 듀란트(Henry Durant)의 이름을 사용한 듀란트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루터란교회 친교실에서 가진 주최측과의 공식적인 상견례에서 우리 일행은 이번 심포지엄 준비를 위해 근 1년 동안 수고한 여러 학생들과 관련 인사들을 만났다.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우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우리는 서로서로 반갑게 인사하였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오랫동안 안 사이인 것처럼 아주 가까워졌다. 아마도 한인학생들이 너무 예의바르고 친절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았다. 학생들은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가지면서도 친절성과 예의바름이 몸에 배어 있었다. 미국에서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버클리대학교에 다니는 엘리트 한인학생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부모들의 교육과 학생들 스스로가 미국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교육 분위기를 우리의 전통적인 예의와 결부시킨 것으로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첫 날의 기분이 이러했기에 나는 이번 심포지엄 행사의 마지막날까지 최선을 다해 학생들과 주최측의 열의에 보답해야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튿날 나는 낮시간을 이용하여 버클리대학교 캠퍼스를 구경하였으며, 늘 그랬던 것처럼 서점을 찾아다녔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일행에게는 북한측의 참가여부가 주된

관심이었다. 주최측에 북한측 참여 여부에 대해 계속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주최측도 미국 무부 및 주유엔 북한대표부를 통해 계속 알아보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묘안이 없는 것 같았다. 준비위원회측에 따르면 주유엔 북한대표부에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담당자가 없다거나 모르는 사항이라고 대답할 뿐이라는 것이다. 준비위원회측에 그간의 경과와 북한측의 참여가 확실시 되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다음 날의 중요행사는 저녁에 시작되었다. 내일의 심포지엄을 위한 개막 전야제였다. 줄리아모간극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전야제의 막이 올랐다. 세 여학생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전야제는 오클랜드 한인청년문화원 한마당풍물패의 신명나는 통일굿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산가족의 고통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연극 “장벽”이 공연되었으며, “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두” 등 통일염원을 간절히 기리는 노래공연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풍물패들의 판굿이 진행되었는데, 우리 일행 모두와 주최측 인사들이 무대에 올라 통일을 염원하는 한마당 굿을 벌였다. 전야제는 참석인사 모두가 버클리대학교 대학본부 앞마당까지 통일을 염원하며 행진하는 촛불행진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고 내일의 심포지엄을 기약하였다.

제4차 코리아 평화통일 심포지엄은 4월 8일

오전 10시 30분 버클리대학교 볼트 법대강당에서 열렸다. 많은 학생과 교포들, 그리고 관심있는 미국인들이 참여하였다. 셸리 딘(Shirley Dean) 버클리시 시장은 발표가 시작되기에 앞서 4월 8일을 “한국통일의 날”로 선포한다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그것을 우리측 대표에게 전달하였다. 심포지엄의 발표는 북한측이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 일행의 발표로만 진행되었다. 한인교포학자로 버클리대학 인종연구학과 학과장인 일레인 김(Elaine Kim)교수와 이번 심포지엄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한국학위원회 회장인 박영진군이 공동으로 사회를 보았다. 제일 먼저 김윤옥 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여성의 시각에서 통일문제를 다루어야 더욱 통일을 촉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다음으로 내가 “남북한관계의 현안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하에 나의 글을 발표하였다. 남북한관계가 우리의 실천의지 여하에 따라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을 언급한 후, 남북대화, 경수로공급문제, 남북교류·협력, 인도주의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상호 신뢰회복과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실천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태식 군은 “통일시대를 맞는 전환기의 한반도에서 청년학생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

표하였다. 김군은 남북청년학생이 화해·협력의 기운을 촉진하는 역할, 통일과정에서의 건설적 비판자의 역할, 민간차원의 국제적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분단 50주년을 통일시대 원년으로 맞기 위한 서울대 총학생회의 입장과 계획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윤병익 교수는 “화해와 협력으로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윤 교수는 남북한 사이에 참된 의미의 평화공존관계의 유지를 통해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휴식시간에 나는 여러 한인인사들과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의견의 차이가 있기도 하였으나, 남북한 사이에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였다. 심포지엄의 오후 행사는 남북관계 현안과 통일문제에 대한 청중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우리 일행의 답변과 의견개진으로 진행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경수로문제, 평화협정문제, 남북한 및 미국의 3각관계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나는 최근의 북한 핵문제와 관련 진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다. 또한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오해를 빚고 있는 문제들 — 예컨대 평화협정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남북한의 국방비, 한국형 경수로 등 — 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마침내 심포지엄의 본 행사가 끝났다. 발표

자와 참여자 모두는 북한측이 참여하지 않았음을 못내 아쉬워했지만, 이와 같은 행사가 분단된 조국의 현실문제를 이해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작은 밑알이 될 수 있음에 한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나 개인적으로도 북한측 논객들과의 토론의 장을 갖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를 통하여 남북한관계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이해시킬 수 있었으며, 통일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나의 주장을 개진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다음날인 일요일 저녁에는 루터란교회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예배행사가 있었다. 솔츠 박사도 기도하고, 지난 권위주의정권하에서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던 문정현 신부가 설교를 하였다.

이번 심포지엄 참가를 정리하면서 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았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통일에 대한 열기를 몸으로 체득하면서 한반도 안에서 남북한간에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가에 대해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나 통일문제에 대해 더욱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러한 나의 확신을 뒷받침이나 하듯이 화창한 날씨로 우리를 배웅하여 주었다. 